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9.04.113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현규,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02 시론

건축사의 사명역시 _ 추원호 논설위원

03 종합

사랑에서 _ 마흔 번째 봄
법령소식 _ 3월·4월 건축 관계법령·행정규칙 일부개정·시행 알림
건축사 만평

04-05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여성 건축사 회원들과 간담회 진행
2019년 전라남도 건축관계자 워크숍 개최된다
전남도, 한전공대 세계적 에너지 특화공대로 육성 위한 자원계획 발표

06-07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제32회 정기총회 개최하고 언론인·공무원에 감사패 수여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축구 호남교류전 개최
광주건축사회, 건축사 홍보 및 대시민 건축 민원 무료상담 진행

08-09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제53회 정기총회 성료
전북건축사회 이길환 회장, 전주시 기술직 공무원 대상으로 강연
전라북도, 도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보강 시범사업 추진

10 인터뷰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득염 석좌교수와의 만남

11 작품소개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공공 분야) 금상 수상작

12 독자광장

학생기고
한 편의 시 _ 약속
책 소개 _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를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열람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건축사의 사명의식



추원호 논설위원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대표)
ssd1995@hanmail.net

- 1996 중앙대 건축공학과 대학원 석사 졸업
- 2001 전북대 건축공학과 대학원 박사 수료(도시계획 전공)
- 현, 전라북도미술협회 초대작가(서예)
- 현, 월간 한맥문학 시인 등단
- 현, 대한시문학협회 사무총장

* 건축사는 조형 창작하는 예술인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으로서 사명을 다한다 _ 건축사 헌장.

* 이제 직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며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며,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며,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적의 비밀을 지키겠으며,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_ 히포크라테스 선서.

위의 두 선서가 건축하는 전문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 건강을 지켜야 하는 건축사는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개선을 위해 성실히 수행하는 것과 의사로서 자신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서약하는 두 전문인들의 선언문은 인류 최고의 덕목인 양심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자기 결심을 내세운 것이다. 이러한 사명이 있었기에 의사들에게 나의 생명과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사회 덕목을 더욱 빛나게 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언문처럼 양심 있는 의사가 되길 원하고 있다.

반면 전문성이 있는 전문직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는 의뢰자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언문이나 건축사 헌장에 나타난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궤변론자들(Sophist)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필자는 어느 낯선 도시에 갈 때마다 마음속에 놀라움의 소리가 다가올 때가 있다. 그것은 예전에 분명 텅 빈 공간이었을 그곳에 수많은 건물들을 세우고 넓히어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고 삶의 터를 만들어 인류의 보편적인 공간을 만들었을까? 하는 벽한 감동이 다가오는 것이다.

구석기시대는 고사하고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도로가 뚫리고 공장과 주거단지가 조성되며 전원적인 도시가 시작되면서 지금 같은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기까지의 공로자들은 바로 자본가와 토지주 그리고 도시계획가와 건축사들, 시공사와 인허가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50년 전 공터였던 장소가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공원과 도로가 조성되면서 도시가 확장하는 과정을 바라볼 때, 건축사들의 정신 고충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런 주거환경을 만들지는 않았을 터인데 어느 도시의 수많은 건물들을 보면서 건축사들의 노고가 위대해 보이는 것이다.

지금 같은 도시확장이 되기까지는 도시계획가의 노력도 무시할 수가 없다.

19세기경 도시가 확장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한두 명의 소리 없는 전문가들의 노력이 있어 왔다.

처음에는 건축가들이 건축물의 설계에만 치중하였던 것이 누구나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면서 설계의 영역이 건물에서 도시공간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적 건축가들이 탄생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전원도시를 만들겠다고 전원도시운동인 미래의 전원도시(Garden Cities of Tomorrow) 책을 펴낸 에베네저 하워드(1850~1928)나, 햇빛을 충분히 받으며 살 수 있는 형태의 60층짜리 집합건물을 갖춘 300만 명 규모의 거대도시를 계획하며, 빛나는 도시(Laville radieuse) 저자인 르 코르뷔지에(1887~1965) 같은 건축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것에 조경 분야의 설계가들이 뛰어들어 도시의 조경과 경관에 새로운 지평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뉴욕의 센트럴파크(Central park),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파크(Golden gate park)를 설계한 옴스테드(1822~1903), 자연지형을 살린 호주의 수도, 캔버라를 구상한 월터 그리핀(1876~1937)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19세기 도시계획가는 순수한 기하학적인 학문으로서 도시계획에 종사하거나 자기만의 이상을 실현하였던 인물들이다. 먼저는 건축학, 조경학, 사회학 등과 깊은 연관을 맺고 상호 협력하면서 성장해 왔으며, 나아가 부조리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기여했던 인물들이었다.

근대도시가 하나의 특정 시설물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 복합체라는 점에서 건축가들로부터 도시설계 영역이 탄생하였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다루던 조경설계자들로부터 도시조경이라는 분야가 추가되었으며, 사회학자들에 의해 도시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듯이 건축가도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병리 현상을 진단하여 주거환경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처방하여야 하며, 도시공간 속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 BC 460~BC 370 시기에 히포크라테스가 인류에 대한 봉사, 양심, 생명과 같은 단어를 중심으로 선언문을 썼듯이 우리도 이러한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번 잘못된 도시계획과 건축물은 도시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완벽한 도시와 건물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한계에 의하여 불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건축가, 도시계획가, 조경계획가, 사회학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 같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도시공간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가설계의 바른용어는 기획설계입니다

건축상담과 기획설계는 유료입니다

건축사의 상담과 기획설계는 건축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사랑에서 _ 신세 번째

마흔 번째 봄

봄이다. 봄은 당연히 나에게 오는 것으로만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다. 유독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세상과 이별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지난겨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작년 봄이 마지막 봄이었다. 올해 세상과 이별하는 분들은 내년 봄을 볼 수 없다.

나무들도 가을부터 겨울 내내 준비해야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야 봄기운을 타고 죽은 것 같은 앙상한 가지에서 새싹을 틔울 수 있다.

지난 3월 말 꿈에서 필자의 생명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내용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매우 당황스러웠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면서 아주 슬퍼하다가 꿈에서 헤어날 수 있었다. 잠자리에 누어 잠시 생각했다. 그래 언젠가는 당연히 나에게 올 일이지만 시간은 한정 지으니 그런 것을... 어리석게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활하다가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도심 주변의 산을 유심히 본다. 작은 잎들이 연녹색을 띠고서 세상을 향해 인사를 한다. 와 봄이다.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연녹색 새싹과 산벚꽃, 진달래, 개나리꽃 등으로 산수화를 완성해 가고 있다. 무채색의 겨울 산에서 파스텔 톤의 봄 산으로 변하고 있다.

/ 꽃 피기 전 봄 산처럼 / 꽃핀 봄 산처럼 / 꽃 지는 봄 산처럼 / 꽃 진 봄 산처럼 / 나도 누군가의 가슴 / 한번 울렁여보았으면 / 이란 시가 있다.

함민복 시인의 '마흔 번째 봄'이란 시다. 난 천 번 이상 봄을 맞이하면서 누군가의 가슴 한번 울렁여보았는가? 금년 봄이 나에게 마지막 봄인 것처럼 보고, 느끼고, 함께하면서 울렁이고 싶다. 그 감동을 그 누군가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다. 봄은 나에게 매년 오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멈추게 될 것이기에.

자연이 나에게 주는 생명 변화의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 그냥 버릴 것인지는 모두 나의 몫이다. 봄 산에 꽃 피고 지는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고 간직하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이 봄이 얼마나 소중한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 '카페 디엠(현재를 잡아라)'이란 단어를 떠올려 본다. 유한하고 한 번뿐인 내 인생. 끝은 있는데 언제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시처럼 '나도 누군가의 가슴 한번 울렁여보았으면' 한다.

자문위원_박홍근 건축사(aforyou@naver.com)

법/령/소/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3월·4월 건축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일부개정·시행 알림

시행일자	법령·규칙명	주요내용
2019. 03.14.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진설계 공통기준 반영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에서 제시된 내진성능목표, 지반분류 등을 건축구조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 반영 필로티구조 건축물 내진설계 고려사항 규정 신설 필로티기둥을 사용하는 저층부터 고층구조까지의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기준 마련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개선 - 건축비구조요소 보완·신설(일반사항, 설계절차, 피난경로상의 계단 및 램프 등) -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 보완·신설(일반사항, 설계절차, 도관,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로, 덕트, 파이프 및 배관 시스템 등)
2019. 04.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행위 신고 처리 규정 신설(현행) 규정 없음(개정) 소방본부장 등은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등 1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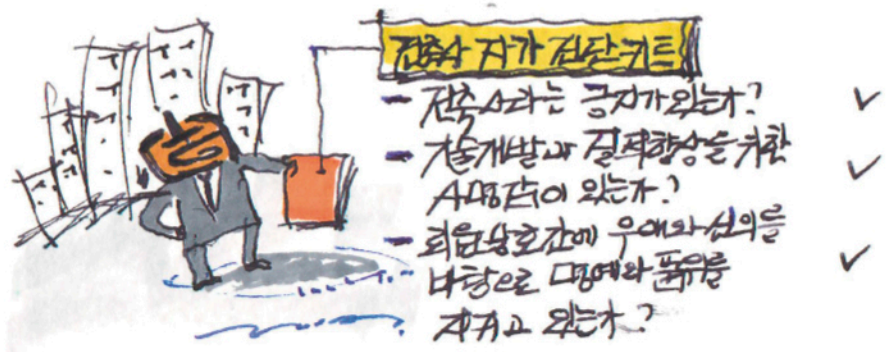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난 2016년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6,633명 검거 중 2,593명이(39%) 각종 자격증 불법 대여로 검거되었고 브로커를 통한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국민권익위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 판단하고 각 법률에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이에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며 함(안 제10조 및 제39조의2).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작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강동영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전담기자 광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박종혁, 설혜순, 정영범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조총기 대한건축사협회 명예회장 100,000원
 (주)마이다스이티 300,000원
 법무법인 법가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i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호두리 1234 단독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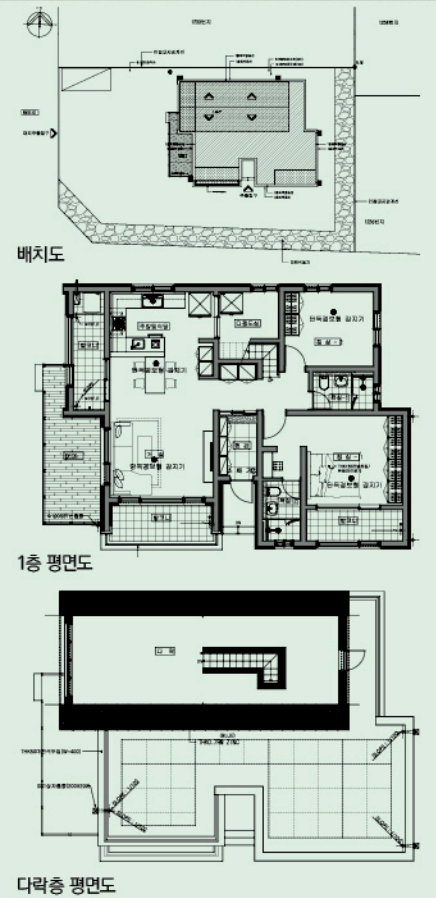
손경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키펀

전남 순천시 중앙1길 30-7, 3층

Tel. 061-742-0810



대지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234 / 대지면적 : 548.50㎡ / 건축면적 : 124.02㎡ / 연면적 : 103.77㎡
 건폐율 : 22.61% / 용적률 : 18.92% / 주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전원마을 조성 사업으로 계획된 전원마을로 필지별 프라이버시 및 조망을 고려한 주거 배치를 하였고 전원주택의 장점인 마당과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옥외공간을 확보하였고 옥상 다락 경사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시설설치로 미관을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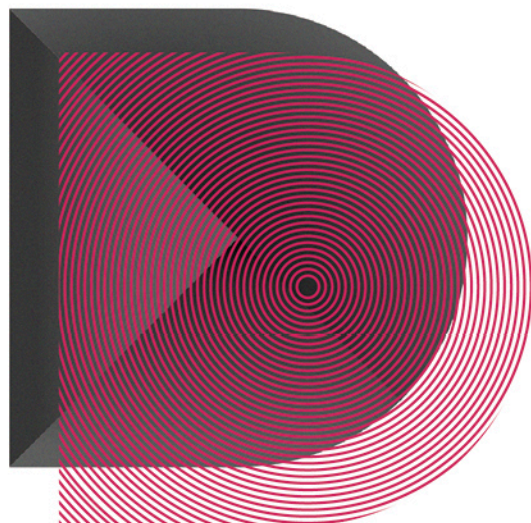
같지만 다른 캐드, 아키디자인 무료제품출시

일반캐드, 리습, 3rd Party
그리고 건축전용기능까지

지금 바로 www.midasCAD.com에서
무료로 제품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1899-9260



작업효율 3배 향상

- 지겨운 라인편집 작업 → Direct Draw !
- 찾은 면적산정/도면수정 → Auto Revision !
- 단순반복 출력, PDF변환 → 1 Click !

쓰던 방식 그대로

- 기본 2D캐드 기능 지원
- 리습, 3rd Party 기능 기본탑재

전남건축사회, 여성 건축사 회원들과 간담회 진행

지난 4월 4일 장흥지역에서... 여성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 협의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지난 4월 4일 장흥통합의료 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여성 건축사 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연준 회장을 비롯하여 여성위원회 이정심 위원장 등 여성 건축사 12인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여성 건축사 회원의 권익 신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2019년 제25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일정 안내 및 차기 여성위원회 회의 개최 일정 등이 논의됐다.

조연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여성 건축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회 활동 참여가 많은 발전적 변화를 이뤄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19년 전라남도 건축관계자 워크숍 개최된다

오는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 The-K 지리산가족호텔에서...



올해 전라남도 건축관계자 워크숍이 오는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 The-K 지리산가족호텔에서 개최된다.

매년 개최되는 전라남도 건축관계자 워크숍은 주택·건축 정책 현안 공유와 전문가 특강을 통한 건축 관계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하여 건축행정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참석대상은 건축사와 전남도 및 도내 시·군 건축, 주택업무 담당자로 건축사는 25일 당일만 참석하면 된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국가 건축·주거복지정책 추진 및 전라남도 건축 발전 방향 토의도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건축사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 한전공대 세계적 에너지 특화공대로 육성 위한 지원계획 발표

나주시와 함께 10년간 총 2천억 지원... 마스터플랜 용역 4월 말 완료 예정



전라남도는 지난 4월 3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한전공대를 세계적 에너지 특화공과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운영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정책이다. 지난 1월 나주 부영CC 일원이

설립 부지로 선정됐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한전공대는 부영CC 일원 40만㎡ 부지에 1천 명(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연구소 및 클러스터는 인근 농경지 등 80만㎡ 부지에 한전공대와 연계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조성된다.

한전은 세계적 경영 컨설팅 회사인 미국의 AT커니에 마스터플랜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은 오는 4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에는 미래비전,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수 및 학생 유치지원 방안, 산학연 연계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한전공대 입지 선정 이후 한전에서는 한전공대설립단을, 전라남도에서는 한전공대설립지원단을 신설해, 나주시와 함께 한전공대 설립 관련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한전공대를 세계적 에너지특화대학으로 설립해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도 차원의 투자 일환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전라남도과 나주시에서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전공대 개교 연도(2022년 3월)부터 10년간 매년 각각 100억 원씩 총 2천억 원(전남도 1천억 원, 나주시 1천억 원)을 지원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및 국내외 우수 학생 유치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는 가장 최근 개교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설립 당시 울산시(매년 100억

원씩 15년간 1천500억 원, 부지매입비 등 752억 원)와 울주군(매년 50억 원씩 10년간 500억 원)에서 지원한 사례를 고려했다.

한전공대 부지 40만㎡는 (주)부영주택에서 나주 빛가람동 부영CC 부지를 한전공대 학교법인에 무상 제공하고, 연구소 및 클러스터 부지 80만㎡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한전과 협의하고 있다.

전라남도과 나주시는 ‘한전공대 설립 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을 해당 의회 등의를 받은 후 협약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을 할 계획이다. 협약안에는 재정지원, 부지 제공,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으로 오는 6월 한전공대 설립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 9월 학교법인 설립, 2020년 2월 도시계획변경, 6월 캠퍼스 건축허가 및 착공, 2021년 6월 대학설립인가, 2022년 2월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5억 원 들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1천 500여 가구 지원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한해 5억 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도민들이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1천500여 가구에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신재생에너지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으로, 단독·공동주택의 설비용량에 따라 태양광 1kW 기준 시군비 포함 최대 46만 7천 원(3kW 1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kW당 10만 7천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국비 보조금은 태양광(3kW) 최대 168만 원이다. 세부 내용은 누리집(<http://greenhome.kemco.or.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참여기업인 시공업체와 계약 후 신청 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http://greenhome.kemco.or.kr>)에 제출하면 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1차 접수는 지난 3월 29일 끝난 상황이며, 2차 접수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이다. 공동주택은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남 순천시, '2019 북문로 일원 도시재생대학' 성료

3월 14일부터 4회 운영, 수료자 34명 추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반영



전남 순천시는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리더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개최한 '2019 북문로 일원 도시재생대학'을 지난 3월 28일 수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순천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북문로 일원 도시

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 계획수립 과정과 연계해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주도 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수료식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34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도시재생대학은 단순한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동네 한 바퀴를 통한 자원조사를 비롯해 주민 주도하에 사례발표, 분임토의 등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참여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 의견들이 나와 주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렴한 주민 의견을 통해 북문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이승준 건축사 / 정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248번길 48
- **재입회**
- 이정호 건축사 / 회원도시 건축사사무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58, 2층
- **변경(소재지)**
- 손상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상상: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유신동길 17-2
- 조봉기 건축사 / 조은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여서동3길 26
- 김동식 건축사 / 우주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여서동3길 26

세하동 D-House

이원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음건축
 광주 서구 화정로 268,3층
 Tel. 062-363-3370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464 / 대지면적 : 485㎡ / 건축면적 : 180.11㎡ / 연면적 : 221.30㎡ / 건폐율 : 37.13%
 용적률 : 40.44% / 주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스타코, 징크패널, 루이복층유리, 적삼목



광주건축사회, 제32회 정기총회 개최하고 언론인·공무원에 감사패 수여 지난 3월 15일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신입 감사 및 이사, 대의원 선출도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지난 3월 15일 광주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회원 및 초청 내빈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1부 기념식에서 지역 언론인과 건축 관계 기관 공무원 등 10인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는데 언론

인 수상자는 전남일보 이용규 사업본부장과 광주일보 김일환 편집국장으로서 평소 지역건축문화에 관심을 갖고 광주건축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됐다.

건축 관계 기관 공무원 수상자는 광주시 신도시 조성 과장 신재욱 과장과 광주시 건축주택과 박금화 사무관, 북구청 건축과 김경중 과장, 동구청 건축과 민지현 주무관, 서구청 건축과 임소형 주무관, 남구청 회계과 양철훈 주무관, 광산구청 건축과 황미희 주무관, 광주지방경찰청 제2부 112종합상황실 조은희 상황팀장으로 광주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건축문화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됐다.

이와 함께 건축사회 임원 임기를 만료한 이사와 감사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도 개최됐다.

강현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광주건축문화가 발전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모든 능력을 다하여 지역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부 본식에서는 신입회원 소개를 비롯하여 2018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등이 진행되었고, 부의안건 3건에 대한 의안 심의가 이어졌다.

2018년도 회계 수지결산(안)과 2019년 수지예산(안)은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되었으며,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에서는 감사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한명석 건축사(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와 이사 5인과 대의원 10인(당연직 본협 임원 1인 제외)이 선출됐다.

한편, 광주건축사회 이사회는 지난 3월 25일 동구 금수장에서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전임 부회장이던 강석훈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선명)와 이경행 건축사(아키씨엠 건축사사무소(주))를 1년 임기의 신입 부회장으로 연임 의결했다.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축구 호남교류전 개최

지난 4월 6일 광주 광산구 보라매4구장에서... 호남권 회원 50여 명 참석

광주·전남·전북지역 건축사 50여 명이 지난 4월 6일 광주 광산구 보라매4구장에서 축구를 통해 하나가 되는 행사를 가졌다.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회장 노진욱)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호남지역 회원들의 상호 친목 도모와 교류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격려차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정명철 이사 등이 방문했다.

강현구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호남지역 건축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상호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더불어 서로 간의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사 축구 호남교류전은 매회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소속 축구동호회가 순번제로 소속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건축사 홍보 및 대시민 건축 민원 무료상담 진행

지난 4월 4일부터 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민 100여 명 상담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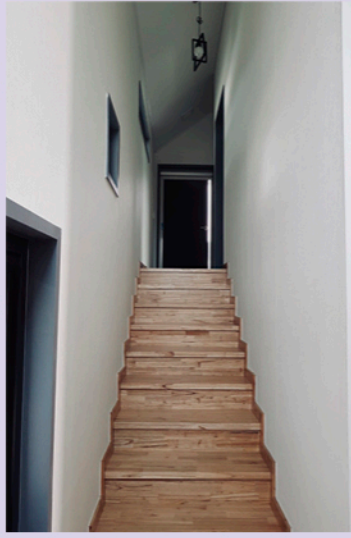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4월 4일부터 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 민원 무료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건축 민원 무료상담은 건축·건설·인테리어 전시회인 ‘2019 광주 경향하우징페어’와 연계된 행사로 전시장 내 부스에서 광주건축사회 소속 여성 건축사 8인이 돌아가며 건축법규와 계획, 시공 및 건축 민원에 대한 제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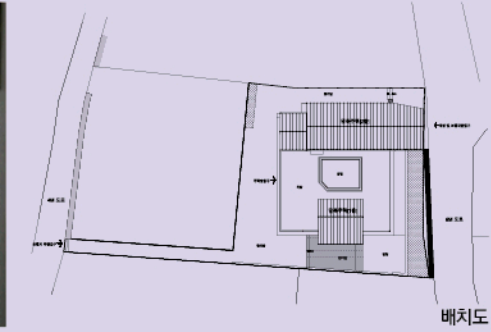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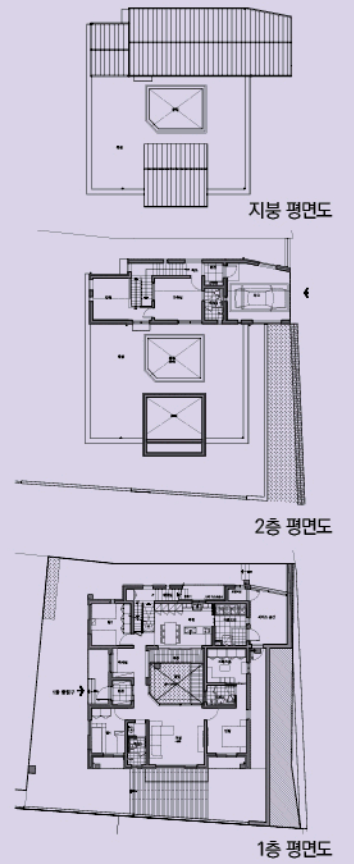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고 4일간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이 상담을 받았다.

이와 함께 상담 부스 안에서 건축사 업무 관련 홍보 영상 상영과 함께 2018년 제22회 광주건축상 수상작 전시도 진행됐다.

강현구 회장은 “날로 다양해지는 건축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들을 위한 ‘건축 민원 무료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히며 “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건축사가 직접 상담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고 건축사에 대해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말했다.



본 대지는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측 도로변에 전통담장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 담장은 가급적 유지하고 싶었다. 건축주는 가급적 1층을 넓게 쓰고자 했고, 3명의 자녀들을 위한 방과 거실, 다락과 차고를 요구했다. 대지면적이 충분했던 터라 1층을 넓게 가져갈 수 있었지만, 동측도로가 3미터 이상 높았기에 차량접근은 2층에서 보행자접근은 1층에서 해결해야 했다. 고민 끝에 2층 규모의 증정 있는 집을 제안했다. 1층은 전통한옥의 ㅁ자 평면을 기본 틀로 해서 작은 증정을 사이에 두고 거실, 복도, 부엌이 이를 바라다보는 평면을 구성하였고, 증정엔 작은 소나무 한 그루와 틈마루를 두었다. 2층은 계단을 복측에 두고 실들을 남측에 두어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였다. 구성은 식당과 바로 연결되는 다락과 가족실, 차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적인 집 내부 인테리어는 건축주 취향에 맞게 모노 계열로 모던하게 연출하였다.



광주건축사회 주최, 호남지역건축사골프대회 개최

오는 4월 18일 전남 무안컨트리클럽에서... 3개 시·도 건축사 80여 명 참가 예정



광주건축사회가 주최하는 호남지역건축사골프대회가 오는 4월 18일 전남 무안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다.

현재 광주건축사골프동호회(회장 박재홍)가 주관하여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건축사 80여 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회에 강현구 회장은 광주건축사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가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건축사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호남지역건축사골프대회는 광주·전남·전북지역 건축사 상호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난 2018년 6월 전북건축사회 주최로 제1회 대회가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3회 대회를 맞이한다.

■ 광주건축사회 주요 소식

① 위원회 조직 신규 개편 [임기 : 2019년 4월 ~ 2020년 3월까지(1년)]

위원회명	담당업무	위원장	사무소명
윤리	회원 윤리(징계심의)에 관한 사항	윤익상	(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거관리	선거 관리 및 진행에 관한 사항	김희현	건축사사무소 우성건축(주)
건축법제	건축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박형갑	건축사사무소 토형
국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심상봉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인사	직원인사,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최경양	한샘 건축사사무소
안전도시재생	건축물 안전관리 및 재생에 관한 사항	길종일	(주)디자인건축사사무소
여성	여성 건축사 위상에 관한 사항	최보은	(주)창조 건축사사무소
정책개발	건축사회 정책개발 수립	임채열	나성 건축사사무소
교육연륜홍보	건축사 교육연수 및 연륜홍보에 관한 사항	이영문	이영 건축사사무소
스타트업 건축타운조성	1인 건축사의 스타트업 사무실 조성	차은영	(주)건축사사무소 시명
청년	청년 건축사 창작활동 지원	김익희	건축사사무소 올림
예산편성	건축사회 예산수립 및 편성에 관한 사항	정명철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	회원의 지방의회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김후진	(주)반석 종합건축사사무소
공공발주 제도개선	공공발주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찬균	건축사사무소 우창
편집	건축문화사랑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강동영	(주)청어람알앤씨 건축사사무소

② 서구협의회 회원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9. 4. 24.(수)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서구 소재 회원사
- 내 용 : 법·제도 변경현황, 건축사회 현안 설명 및 의견 청취, 광주전남건축사협동조합 소개 및 현황 설명

③ 구별협의회 회장 선임 [임기 : 2019년 4월 ~ 2021년 3월까지(2년)]

구별협의회장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성명	길종일	문창식	노진욱	임채열	정재한
사무소명	(주)디자인건축사사무소	우리 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은강	나성 건축사사무소	모건아트 건축사사무소

④ 제3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개최(사회지원사업)

- 대회일시 : 2019. 5. 10.(금)
- 대회장소 : 광주광역시 전천후게이트볼구장(상무지구)
- 참가인원 : 선수(약 200여 명), 내외빈, 심판 등 약 270여 명

⑤ 제7회 광주건축사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대 상 : 광주광역시 건축사 회원 등
- 행사구성 : 개막식(입장식 / 대회사 / 축사 / 개막선언 / 체조 및 시축) 한마음체육행사(줄다리기, 족구 등) 문화행사(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 팀 구 성 : 청팀(동구, 북구, 광산구) VS 백팀(남구, 서구)
- 일 시 : 2019. 5. 25.(토) 오전 10시~오후 3시
- 장 소 : 동강대학교 체육관

광주 회원동성

- **입회**
- 최준철 건축사 / 서우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북구 유동길 8, 주영빌딩 4층
- **변경(상호, 소재지)**
- 김종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영산아트 /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2번로 58-20
- **변경(소재지)**
- 이경행 건축사 / 아키씨엠 건축사사무소(주)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114, 212호
- 이윤행 건축사 / 티에스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114, 212호
- **결혼**
- 김동선 건축사 / 원일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04월 06일(토)
- **부고**
- 안민순 건축사 / 원도 건축사사무소 / 부인상 - 03월 20일(수)
- 허창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진영 / 부친상 - 03월 28일(목)

전북건축사회, 제53회 정기총회 성료

지난 3월 15일 전주 오펜리스 컨벤션에서... 전북도 정계, 기관 인사 대거 참석



전북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지난 3월 15일 전주 오펜리스 컨벤션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북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회원 230여 명과 전북도 김승일 행정부지사,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정동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 건축사공제조합 조태종 이사장,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정대영 회장,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 설비건설협회 손성덕 전북도회 회장 등 정계, 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1부 기념식과 2부 본식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전라북도 도지사 표창, 전라북도 교육감 표창,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공로상 수여에 이어 전라북도 및 시군 건축직 공직자 중 모범공직자 5명(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유재경, 도교육청 시설과 하태훈, 덕진구청 건축과 강연호, 익사시청 주택과 임종인,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정민호)에 대해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2부에서는 2018년도 수지결산과 임원 증원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칙 개정(안),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원안 승인하고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했다.

김유천 건축사(아이아트 건축사사무소)를 감사로 선출하고 이사 11명과 대의원 9명(당연직 1인 제외)은 이길환 회장에게 선출을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이길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축 전문가 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하여 한 단계 발전하는 도회와 건축사 업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번 총회에서 위임되어 선출된 이사와 대의원 명단이다.

구분	건축사명 및 사무소명
이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임 - 7명 김상수 건축사(한솔 건축사사무소), 홍영식 건축사(하늘 건축사사무소), 김경태 건축사(엠.에스 건축사사무소), 이성열 건축사(유)건축사사무소 중원), 박광성 건축사(바우 건축사사무소), 강정용 건축사(삼호설계 건축사사무소), 정주용 건축사(가림 건축사사무소) 신임 - 4명 장종우 건축사(주)장인 건축사사무소, 김종용 건축사(건원 건축사사무소), 기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뿌리), 최현정 건축사(온고을 건축사사무소)

구분	건축사명 및 사무소명
대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임 - 7명 김남중 건축사(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당연직-분협 이사), 최진호 건축사(우창 건축사사무소), 이성열 건축사(유)건축사사무소 중원), 정용균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세운건축), 최현정 건축사(온고을 건축사사무소), 박현우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빛), 홍영식 건축사(하늘 건축사사무소) 신임 - 3명 박진만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장원), 김유천 건축사(아이아트 건축사사무소), 장종우 건축사(주)장인 건축사사무소)

전북건축사회 이길환 회장, 전주시 기술직 공무원 대상으로 강연 진행

지난 3월 13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건축물과 녹화의 관계' 주제로...



전북건축사회 이길환 회장은 지난 3월 13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팔복예술공장에서 건축·토목·지적·녹지직 등 전주시 산하 기술직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전주시가 생태 도시 조성 관련 각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국내외 선진도시의 혁신사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공무원들의 생각과 시야를 넓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길환 회장은 이날 '건축물과 녹화의 관계'를 주제로 건물녹화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원칙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녹지 공간 확보 해외 선진사례를 통해 전주시 기후환경에 적합한 수증선정 등 녹색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전주시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전문가 강연과 현장 견학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내실 있는 자기계발을 돕고,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전라북도, 도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보강 시범사업 추진

건물당 4천만 원까지 화재안전 성능 보강, 건축주 1/3 부담... 4월 30일까지 접수

전라북도는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기존 화재 취약 건축물로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취약요인을 갖고 있는 3층 이상 건축물이다.

사업비는 동당 4천만 원 이내이며, 이중 1/3은 건축주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티롤 단독주택

강미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황학5길 5-7
Tel. 063-288-9380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48-16 / 대지면적 : 280.50㎡ / 건축면적 : 123.81㎡ / 연면적 : 244.65㎡
주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1층-철근콘크리트구조, 2·3층-일반목구조 / 주요 마감 : 외단열미장마감, 징크강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 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 옥외 피난계단, 간이 스프링클러, 방화문, 외벽 교체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다.

사업희망자는 해당 시·군에 4월 30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대상자는 시·군 및 도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전북대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으로 취임

지난 3월 18일 임기 2년 회장에 취임...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이하 남 교수)가 지난 3월 18일 임기 2년의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농촌건축학회는 1998년에 창립되어 현재 우리나라 농촌건축을 대표하는 학회로 알려져 있다.

이 학회는 일반적인 학회와는 다르게 학회 활동뿐만 아니라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공을 살려 교수와 학생들이 '농촌 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 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을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공모전인 '농촌건축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남 교수는 매년 여름에 소속 대학 건축공학과 학생들과 전라북도 내 농촌을 대상으로 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남 교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대한건축학회연합회장을 수행하면서 학계와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문화유산보호 공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주실내체육관 신축 이전사업, 전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서 통과

조건부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오는 2023년까지 건립사업 완료 예정

건축된 지 45년이 지나 낡고 협소한 전주실내체육관이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글로벌 규격으로 신축된다.

전주시는 전주실내체육관 신축사업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전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KCC 이시스 농구단 완전 정착, 농구팀 지역 기여 향상, 기존 실내체육관 활용 활성화 등의 조건부로 통과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지난 3월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22억 원을 투자해 복합 스포츠 타운으로 조성 중인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현 전주실내체육관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면적 23,400㎡, 연면적 15,940㎡, 관람석 5,000석 규모의 새로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는 전주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마지막 승인 절차인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확보와 토지매입 등의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 설계 용역을 거쳐 신축공사를 발주해 오는 2023년까지 건립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프로농구를 즐기는 시민과 농구팬들에게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실내체육관이 농구뿐 아니라 배구와 핸드볼, 배드민턴, 체조 등 각종 스포츠 국내·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전북 지역 유일의 실내체육관으로 건립되는 만큼 각종 국내·국제 스포츠 대회유치로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제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진행

올해 6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80가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



김제시는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고 주거 실태와 대상자 욕구에 맞는 집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지답사를 하였으며 이달 초 공사에 착수 중에 있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기타 저소득층에 지붕개량, 화장실 개보수, 도배 장판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김제시는 4억 2,400만 원 사업비로 122가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고 올해 6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80가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회원동성

- 전입
 - 정미원 건축사 / 예돈 건축사사무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8길 10
- 퇴회
 - 홍영준 건축사 / 우동 종합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최희곤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모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1길 18-1
 - 정상민 건축사 / 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선화로31길 50
 - 김병권 건축사 / 드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궁동로 93
 - 문남영 건축사 / 맥 건축사사무소 / 전북 군산시 법원로 56
 - 임애라 건축사 / 라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서로 78
 - 김현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현디자인 / 전주시 덕진구 만성서로 78
 - 윤창식 건축사 / 윤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석산1길 16, 4층
- 결혼
 - 김정두 건축사 / 두성 건축사사무소 / 차녀 결혼 - 03월 23일(토)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한 곳, 함박눈이 뒤덮인 전나무 숲속, 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졌던 티롤에서의 생활은 가족에게 끈끈한 행복으로 기억되며 일상에서 지칠 때 가고 싶은 그리운 마음의 고향이 되었다.

티롤에서의 삶을 기억하며 그 행복을 오래 간직하고자 티롤이라 지었다.



불타여정 30년의 맺음과 인생 3막 출발선에 서서...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득염 석좌교수와의 만남

호남 지역 최고의 전통건축 권위자이자, 국내·외에서 아시아 불탑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득염 교수(이하 천 교수)가 지난 2월 28일, 34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정년퇴임과 함께 학자로서의 최고 영예인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4월 8일 전남대학교 연구실에서 동대학 석좌교수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천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천득염 석좌교수

| 학력 |

-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공학사 및 공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공학박사)

| 경력 |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 대한민국 한옥박람회 조직위원장
- 아시아문화아카데미 원장
- 한국건축역사학회장
- 국제운동학회장

| 논문 |

- 운주사석탑의 양식적 특성과 세계유산으로서 의미(호남문화연구, 2013)
- 전남지역석탑의 출현과 특성(건축역사연구, 2014) 외 다수

| 저서 |

- 동양의 진주, 스리랑카의 역사와 문화(심미안, 2017)
- 은일과 사유의 공간 소재원(심미안, 2017)
- 인도불탑의 형식과 전래 양상(심미안, 2018) 외 다수



정년퇴임식에서(2019.02.28.)

정년퇴임을 하신 소감과 석좌교수로 임용되신 소감

정년퇴임 무렵에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무엇을 할 것이냐?’, ‘퇴임하는 것을 위로해야 하나...? 축하해야 하나?’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연히 축하해야 할 일이지요. 모교의 조교부터 시작해서 교수로 임용되고 퇴임하기까지 총 34년간 몸을 담았습니다. 모교에서 후배를 제자로 두고 봉직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석좌교수로 임용됨에 따라 특히 우리 건축학계에서 석좌교수라는 타이틀은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걸어오신 길

농부이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공부에 대한 열망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에 서울권 대학 진학을 목표했으나 실패하고 삼수를 하여 전남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학생회장 활동을 하며 학업에 소홀했었고, 대학원 진학은 꿈도 꾸질 않았습니다. 졸업 후 대우건설에 입사하며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폐결핵이 발견되어 2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 회사를 그만두고 무등산 어느 사찰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모교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국 건축사와 문화재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때부터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석사를 취득한 후, 그 당시 공대 특성화라 하여 건축과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과정과 목표의 어느 전문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하다 군대에 간 후, 다시 모교 조교로 임용되고, 고려대 박사 과정을 거쳐 본 대학 교수에 임용되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정말 하는 일마다 잘되었습니다. 전남대 학생처장도 했었고 청와대 자문위원회 위원, 문화재 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 활동과 왕성한 집필활동 및 각종 연구 활동도 수월하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연구 업적 또는 관심 분야

1992년 하버드에서 연구 활동을 할 때 학내 게시판에 노벨상 수상자가 퇴임 강연을 한다는 조그마한 공고문 한 장을 보고 강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몇십 명이 자리에 앉아 강연을 듣고 상호 토론하는 형식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경우 퇴임 강연을 한다고 하면 각종 화환이 배치된다든지 요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며칠 후 있을 저의 퇴임기념 강연에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합니다. 퇴임 강연 주제는 ‘불타여정 30년’입니다. 저의 연구 인생은 불타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석사 논문은 ‘실상사 3층 석탑의 조형비에 관한 연구’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는지 미학적으로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박사 논문도 ‘백제계 석탑의 조형 특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하버드대학에서는 ‘시원 불탑의 의미론적 고찰’과, 교토대학에서 ‘불탑의 동아시아 지역 전래’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 여러 나라의 탑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또 정부 지원으로 한옥에 대한 연구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비전 또는 발전 방향

지금은 건축이 많이 어렵습니다. 한때 국민총생산량의 약 23%까지 달했던 건축 분야가 지금은 약 7% 대로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 발견해야 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과 북한 시장의 개방에 대비해야 하고, 해양건축 등 새로운 장르의 건축 분야들도 개발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건축 또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시대 흐름에 따른 문제들은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인들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 단체들처럼 단합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건축인 모두가 협력을 통해 자존과 자금을 세우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토대로 확립하신 건축 학자로서의 철학은?

‘휴먼!’, ‘인본!’ 건축의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교육과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두어야 하지요. 건축도, 교육도 인간을 버리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광주에서 의미 있는 여러 건축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봐왔고, 사라지려는 건축물들을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함께 지켜낸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중심에서 인간과 건축물들이 잘 어우러져야 남겨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축인 또는 제자들에게 당부 한마디...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여 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선택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정년을 하고도 저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아 설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와 파키스탄, 태국 등 여러 아시아 국가의 탑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되거나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집필 중에 있고 조만간 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또 일본의 불탑과 중국의 불탑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여 한-중-일 불탑 비교 연구를 마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별도의 광주역사박물관을 설립하는 추진위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명예롭게 ‘광주역사박물관 추진위원장’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에서 역사박물관이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합니다. 현재 광주 복구에 있는 광주국립박물관은 신안해저유물 전시를 해놓은 곳이고 그 주변에 있는 민속박물관도 광주가 아닌 남도의 민속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광주만의 역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삼국시대는 어떠했나?, 통일신라는 어떠했나? 그런 내용들이 전시되는 공간도 장르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후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취재 : 강동영 편집인, 박주현, 박준호 부편집인, 배성훈 학생기자 / 정리 : 광승국 전담기자



건축가협회 초평상 수상(2015.10.23.)



문화재 위원회 활동



이란 답사(2015.02.09.)



담양 소재원 해설 활동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공공 분야) 금상 수상작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설 계 자 : 이성영 건축사 ((유스페이스모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72-1번지 외 9필지

대지면적 : 9,218.00㎡

건축면적 : 1,418.27㎡

연 면 적 : 2,279.72㎡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주 용 도 :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중량목구조

주요마감 : 화강석, AL.SHEET 패널, STS 제진강판, 로이복층유리

본 작품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행정복지센터이다. 소양면은 완주군 내에서도 풍류와 멋이 특징적인 행정구역이다.

기존의 원주민, 귀농·귀촌인, 예술가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특히, 피아니스트 임동창 씨가 운영하는 풍류학교가 있다. 또한 아원, 송광사, 위봉사, 위봉사 벚꽃길, 원등사, 위봉산성 등 다수의 전통공간과 정서적 풍요로움을 주는 장소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소양 행정복지센터는 이러한 소양의 첫인상이 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단순한 행정지원기능의 건물이라기보다는 소양을 소개하는, 지역의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계획 방향을 설정하였다.



북카페



중합민원실



대회의실



홀 / 북카페

■ 배치도



학생기고 _ 양민희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여수)

활력이 넘치는 학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수님과 학생들이 힘을 합쳤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건축디자인학과는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건축학교육인증(KAAB) 준비와 더불어 학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설계실을 개편했다. 이를 위해 5명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복도와 홀에 배치된 의자나 책상은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낮아 지나다니는 학생들을 마주하기가 어려웠다. 그로 인해 홀은 삭막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연속이었다.

그런 홀을 탁구대 설치와 전자레인지, TV, Magazine rack(잡지대)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편의 제공과 함께 다채로운 색채의 새로운 가구 배치로 인해 명쾌한 분위기와 학생들의 활기로 가득 채워졌다.

또 기존 설계실은 서로 마주 보고 하는 공간에서 현재 가벽의 설치로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수 있는 설계실이 되었다.

이와 함께 현재 복도의 벽면은 교수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복도 핀업(Pin up) 방식의 설계 크레딧 방식을 채택하여 게시판 재질의 재료를 벽면에 입혀 그 위에 학생들의 작품으로 가득 차게 했다. 그 외 학과전용 도서관과 작품전시실도 새 단장을 하였다.

또 올해 여름방학이 지나면 홀과 면해 있는 합동강의실은 폴딩도어(Folding door)를 설치하여 더욱 개방된 공간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변화가 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이라 생각하고 더 나아가 학과의 전체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확신한다.

한 편의 시 _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약 속

서로의 갈증을 덜어가며
허기진 가슴을 채워가며
해와 달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보자고

남들이 알아볼까봐
가슴 조이던 설레임이
신나고 흥분 되던 목소리가

가을 하늘
새하얀 봉계구름으로
하늘하늘 떠다닐 때면

비밀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가끔씩 꺼내 보는 기분을 아느냐고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이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는
세간의 말이 새롭다

정도
그리움도 뒤로하고

그냥 그냥
성긴 가슴 다독이며
노년의 먹거리로 부족하 지나 양기를 바래며 산다

책 소개 _ 정다인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유현준(건축가) 저 / 와이즈베리 / 2019.02.26.



종종 우연하게 마주친 상황과 공간이 너무 좋았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일찍 잠에서 깨어나서 창밖을 바라볼 때 어슴푸레 비춰오는 햇빛이 따스하게 느껴져 기분이 상쾌해진 경험, 비가 올 때 우산 안에서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는 경험, 공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도시는 개개인에게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해줄 특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따뜻한 문체로 보여줍니다.

이 책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겪었던 공간 중에서 기억에 남고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공간들을 담담하게 적은 책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는 자기 추억으로 결정하고 추억의 무게와 양에 의해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짧은 역사의 과거 기억들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사건과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발견한 도시의 얼굴은 우리 자신의 성장기이자, 연인이자, 우리에게 다가올 행복이기도 합니다. 모두에겐 각자의 도시가 있습니다. 유현준 건축가를 성장하게 한 도시의 요소와 장소를 살펴보고 독자가 자신과 도시의 관계를 다시금 발견하게 합니다. 힙플레이스나 맛집을 찾아 도시를 소비하는 루트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과 연결된, 자신에게만 특별한 도시를 발견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삶은 다 바쁘고 현대인들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즐겨야 될 리스트들도 너무 많습니다. 각종 방송에서 맛집들, 핫플레이스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도 내가 이 스탠다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리스트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자신의 도시에 대해 생각하고 나만의 가치,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의 별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法家 공중임간 법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박철/朴哲

▶ 공중임무, 송무임무, 등기임무, 신청임무

- 변리사
- 대한변협 이사, 청년특위 위원장
- 광주변호사회 총무이사
- 법정문화발전협의회 위원
- 광주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광주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78번길 7
T . 062-233-8071
F . 062-223-5376
E . bubga8070@gmail.com
www.법가.com

당신의 공사감리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감리자 필수앱!! 터치 완성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사진대지 스마트감리앱



PC로그인 www.archim.kr 콜센터 02 3462 1336
[문의] 이기상 건축사 (010) 8276 6158

